

임실N치즈축제 성공 축제 총력

임실군, 10주년 임실N치즈축제기본계획보고회 개최 편의시설 확대, 황금 10돈 이벤트 등 프로그램 풍성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임실N치즈축제 성공을 위한 잔치를 열고 있다.

군은 최근 심 민 군수를 주재로 제전위원과 대행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 임실N치즈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10주년을 기념해 △저지종 원유를 이용한 프리미엄 고다 숙성치즈 홍보행사 △황금 10돈 이벤트 △임실가왕 선발대회 등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 임실을 일원에서 개최되는 임실N치즈축제는 대한민국 최초 치즈를 테마로 임실 치즈의 가치와 지정환 신부님의 정신

을 널리 알리고 임실군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이다.

임실N치즈는 지난 1967년 작고 척박한 시골 마을인 임실 땅으로 선교활동을 하러 오신 지정환 신부님께서 신앙 두 마리를 시작으로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생 끝에 마을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내 지금의 임실군의 치즈 명성을 있게 해 준 최고의 농특산품이다.

치즈축제는 지난 2015년 처음 개최할 당시 10만여 명이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40만명 안팎의 관광객이 찾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축제기간 56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왔고, 16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치즈축제를 통해 '임실군'과 '임실N치즈'의 위상을 한층 높여 대한민

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임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임실치즈테마파크는 국내 관광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23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올해 치즈축제에서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매력적인 콘텐츠를 구성하여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는 물론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준비를 꼼꼼하게 챙겨나갈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N치즈축제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그간의 쌓아온 경험과 열정을 쏟아부어,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구성하여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10주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해보다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고, 부족한 점을 최대한 보완해 최고의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을 양지천변 전경

(사진=순창군청 제공)

순창군, 양지천 꽃잔디로 재단장

경천·양지천 수변종합개발사업 추진중... 새로운 관광 명소 기대

순창을 양지천변을 따라 최근 꽃잔디가 가득 물들어 화려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순창군이 민선8기 5대 역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 온 '경천·양지천의 기억'이 첫 실행을 맞아 양지천의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천과 양지천은 순창읍을 관통하는 군민들의 주요 친수공간으로, 아침 저녁 산책코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에 군은 경천·양지천의 개발로 기억을 만들어 다시 한번 순창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총 1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양지천 산책로 신설, 음악분수대 조성, 산책로변 꽃길 조성 등 경천·양지천 수변종합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가을 43만 분의 꽃잔디를 양지천 제방에 1.4km 구간에 식재한 결과 그 결실이 올해 봄, 햇빛과 함께 화려하게 꽃을 피워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꽃잔디의 개화는 4월 한 달간 지속

되며, 이 기간 동안 양지천은 지역 주민들은 물론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며, 순창군의 문화적 자산이자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경천·양지천 수변종합개발사업은 단순히 꽃길 조성에 그치지 않고, 총 1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음악 분수대와 산책로 신설, 산책로변 꽃길 조성 등 다양한 부대시설 조성이 계획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군은 경천과 양지천을 순창읍의 중심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순창의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그 동안 방치되었던 양지천에 올해 봄부터 꽃잔디가 화려하게 피어나면서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2024 순창 장담그는날 행사 성료

체험존 운영 등 프로그램 다채

주최한 '2024 순창 장담그는날' 행사가 지난 13일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열려 많은 참가자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순창군(최영일 군수) 출연기관인 (재)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이



지난 13일 '2024 순창 장담그는날' 행사에서 최영일 순창군수와 장류 제조 명인·기능인이 함께하여 전통적인 장담그는 방법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이번 행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높아진 현대인들에게 전통 방식의 장담그기를 체험해 보고 직접 손으로 담근 장을 숙성기간을 거쳐 각 가정으로 배송해 맛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장독대 분양 신청자가 아니라도 행사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지역업체 생산품 판매존과 체험존을 운영해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막식 이후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장류 제조 명인·기능인이 함께하여 전통적인 장담그는 방법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으며, 장독대 분양을 신청한 참가자들과 행사장에서 참가를 희망한 관람객들이 함께한 메주 만들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행사 중간에는 순창발효관광재단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선시대 퓨전 의상 컨셉의 장내려나! 퍼레이드가 열려 많은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남원시, 산림치유 프로그램 11월 30일까지 운영

남원시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에서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해 전문 산림치유지도사가 진행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은 남원시 운봉읍 일원에 21

만545㎡ 면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주요 시설로 숲내음길, 음이온길, 조릿대길, 내나무터, 전망대 데크, 비채움 계곡, 명상실, 트리하우스(8개동), 힐링캠핑장(6개면) 등 지리산의 풍부한 산림자원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일반인, 직장인, 장애인, 노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별 프로그램 6개(어느 멋진 날에, 나이가 가라 등)

와 특화된 구성은 치유의 공간을 코스별로 이동하면서 오감만족길 산책, 숲자원관찰, 자연 명상, 나무와 교감하기 등 다양한 치유 요법으로 되어 있다. 각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2시간 이내이며, 참가 대상은 4인 이상 누구나, 참가비는 무료이고 방법은 사전에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상담 후 예약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코리아 오픈 국제롤러대회 18~24일 개최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롤러 경기장과 실내체육관에서는 2024 남원 코리아 오픈 국제롤러대회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13개국(대만, 홍콩, 중국, 러시아 등) 1,7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다.

올해로 17회째인 이번 대회는 국내 최고의 국제대회이자 명실상부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대회로 발전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금빛 레이스를 펼칠 계획이며, 인라인 하키와 예술을 접목한 슬라럼 종목도 펼쳐 롤러 스포츠를 사랑하는 관중들에게 화려하고 흥미진진한 경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는 그동안 대회를 치르며 축적된 노하우와 대회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경기를 지원, 남원을 찾는 선수들에게 기억이 남는 대회가 되도록,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친절·위생 분야 지도점검은 물론, 통역요원, 의료지원, 자원봉사, 관광 안내, 교통질서 대책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대회는 세계 각국에 남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2024 춘향 사랑' 음식점 모집... 19일까지

남원시는 남원을 대표하는 '2024년 춘향 사랑' 음식점을 모집한다.

그동안 남원시는 남원만의 대표 음식점 선정을 위해 타 시군 사례 검토 및 관련 단체와도 꾸준히 협의해 왔으며, 음식점 지정·관리 뿐만 아니라 대표 음식 브랜드화,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등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춘향사랑'은 남원시에서 인증하는 맛, 위생, 서비스 등이 우수한 음식점으로 관광사업인 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일반 음식점이며, 전국 규모 영업장의 영입을 우선하며, 전문적인 음식점(본점 가능), 주점 형태의 음식점, 세금 체납 음식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및 제출양식을 오는 19일 오전12시까지 남원시보건소 위생안전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남원시지부에서 접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주유소 흡연시 과태료" 부과

남원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공포 2024년 1월 30일)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 흡연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의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며,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 이를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